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9월14일 시행… 걸림돌 없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시장 70주년 ‘불스 레이스’ 참석

증권가 우려엔 ‘준비기간 충분’ 일축
시장점유율 90% 이상 참여 전망
넥스트레이드와 동등 경쟁환경 필요
증시엔 과열보다 속도조절 주문



21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제17회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불스 레이스)’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성업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시행 시점을 9월 14일로 확정하며 추가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서 전산·노무 부담을 이유로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준비 기간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7회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불스 레이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14일까지 기간을 더 연장해 주면 상당수 증권사가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시행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 말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증권사들의 전산 개발 부담 등을 반영해 시행 시점을 약 두 달 반 늦춘 바 있다. 오는 9월 14일부터

는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정규장 외에 프리마켓(오전 7시~7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간담회에서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9월 시행도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기간도 당초 3개월 반에서 5개월 반으로 늘어났다”며 “그 정도면 준비 기간은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형사뿐 아니라 중형 증권사까지도 (거래시간 연

장) 문제 없다는 데 합의했다”며 “시장 점유율 기준 90% 이상이 거래시간 연장한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시간 연장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수록 좋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시간이 길면 좋을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미국 나스닥은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아카(Arca)가 22시간 거래 연장을 승인받은 상태다. 이밖에도 영국·독일·홍콩 등에서도 거래시간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 이사장은 향후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과 관련해 “동등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신생 거래소 보호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35~40%까지 확대됐다”며 “거래시간과 수수료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이 마련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경쟁이라는 건 공정이 확보된 단계 이후의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넥스트레이드가 거래시간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 것도, 시장 내 입지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6000을 넘어 7000도 가능하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수를 다지면서 가자 오버페이스하면 탈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기념해 ‘거침없는 도전!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마라톤(5·10km)을 비롯해 기업대항전, 에어바운스 챌린지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고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가족 약 7000명이 참여했다. 참가비와 후원금 전액(총 2억 30만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영등포구와 부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됐다.

정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17년 동안 이어진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였다”며 “금융투자인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프리미엄 자본시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거래소도 자본시장의 앞날을 위해 계속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스 레이스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불스 레이스는 분위기가 예년보다 훨씬 고조된 느낌이다”며 “지난해는 탄핵 정국과 증시 하락, 거래 정지 이슈까지 다소 어수선했지만, 올해는 변동성 속에서도 코스피가 5000선을 지키는 등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행사가 열려 한층 더 밝은 모습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참여자들의 활기도 높았고, 다이나믹 듀오 공연 등 현장 프로그램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내도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유력
올해 5월께 국내 출시 전망

“이제 삼성전자에 베팅하러 홍콩·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 서학개미들이 환전 비용과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해외 증시에서나 찾았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올 5월경 국내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초우량 코스닥 종목만 모아놓은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와 완전 액티브 ETF 등도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어 국내 ETF 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이 이르면 5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기초자산 요건 등 상품구조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가총액·거래량 관련 기준과 해지(위험분산)가 원활하도록 선물종목 관련 요건도 포함된다.

대상 종목은 금융당국이 밝힌 ‘국내 우량주식’ 범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완전 액티브 ETF와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도 출격을 대기 중이다.

완전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한다는 지수연동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상품이다.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 일반 공모펀드가 상장된 형태에 가깝다.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에 승강제를 도입해 프리미엄·스탠다드 등 2개 리그로 개

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중 프리미엄 리그의 최상위 우량주만 추려 지수화하고 이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시총·거래량·주가 흐름 등은 안정적인 초우량 종목을 선별해 기존 코스닥150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지수를 개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완전 액티브 ETF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 연계 ETF는 내년 초 상품 출시를 각각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까지 신형 ETF가 순차 출시돼 자금 유입되면 국내 ETF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ETF 순자산 총합은 지난 20일 기준 약 381조3300억원으로 연초(297조1400억원)보다 30% 가까이 늘어났다.

/허정윤 기자



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 홍보관에서 2025년 상장주관업무 수행한 기업금융(IB)을 평가해 우수IB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IBK투자증권

거래소, 미래에셋증권 ‘통합 최우수 IB’ 선정

코스피 KB증권, 코스닥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최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상장 주관 업무를 수행한 증권사를 평가해 우수 IB를 선정하는 시상식에서 ‘통합 최우수 IB’ 첫 수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는 각 시장별로 분리 운영하던 IB시장을 올해부터는 통합해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통합 최우수 IB’를 새로 선정했다. 시장별 우수 IB로는 유가증권시장 부

문에서 KB증권, 코스닥시장 부문에서 삼성증권, 코넥스시장 부문에서 IBK투자증권이 각각 선정됐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기여도, 상장 기업의 우수성, IB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 기업 상장을 확대해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쪼그라든 스팩시장… 상장 첫날은 ‘날뛰기’

IPO 비중 5.7%까지 축소
합병 성공률 38%대로 급락

스팩(SPAC)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상장 첫날 단기 투기성 거래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이후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는 구조적 특징도 재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팩 시장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5년 스팩 신규상장은 25건, 공모금액 2704억원으로 전

년 대비 각각 37.5%, 32.2% 감소했다. 전체 IP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까지 낮아지며 최근 2~3년간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 성과도 악화됐다. 지난해 스팩 합병 성공 건수는 1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쳤지만, 상장폐지는 2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합병 성공률은 68.0%에서 38.5%로 급락했다. 합병 지연으로 스팩의 ‘고연령화’ 현상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단기 주가 흐름은 투기적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상장된 스팩은 공모가 2000원에서 시작해 장중 평균 4067원까지 급등한 뒤 증가 기준 2227원으로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사업 실체가 없는 ‘셸(shell)’ 구조를 감안하면 공모가 수준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합병 이후에도 주가 흐름은 부진했다. 합병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종목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5.2%였으며, 9개월 기준으로는 -26.6%까지 하락폭이 확대됐다. 최근 5년 평균으로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폭과 하락 종목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허정윤 기자

KB운용, RISE ETF ‘반.바.지.로’ 캠페인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섹터 투자 제안

KB자산운용은 봄 시즌을 맞아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RISE ETF’가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한 ‘반.바.지.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반.바.지.로’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의 앞 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4대 성장 섹터를 직

관적으로 표현했다. 계절이 바뀌며 옷차림이 가벼워지듯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역시 핵심 성장주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캠페인 비주얼에는 강렬한 노란색 반바지를 활용해 RISE ETF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KB자산운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바.지.로’ 섹터에 해당하는 RISE ETF 대표 상품 라인업도 함께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